

#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미래 약사의 역할

최재윤\*

경기도약사회 안산시분회 스타프라자약국

(2017년 4월 18일 접수 · 2017년 5월 14일 수정 · 2017년 5월 20일 승인)

## Roles of Future Pharmacists on Adolescent Drug Abuse

Jae Yun Choi\*

The Kyeonggi-do Ansan-si Pharmaceutical Association, Starplaza Pharmacy, Republic of Korea

(Received April 18, 2017 · Revised May 14, 2017 · Accepted May 20, 2017)

### ABSTRACT

#### Keywords:

Future pharmacists

Youth

Substance abuse education

Communication

**Background:** Prescription and over the counter drugs are used frequently in adolescents. Misuse or abuse of these drugs by adolescents can show narcotic-like effects, which can lead to social problems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abuse of narcotics and hallucinogenic drugs. These days, consumers are greatly influenced by advertising, the Internet, and peer groups in making decisions in the drug purchasing process. Recently In these kinds of social environment, some changes have been made in Korea allowing the purchase of certain drugs at retail stores for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However, this change made it more difficult for consumers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about drugs purchased, such as safety, drug interactions, side effects, etc.,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drug expert's involvement in these drug purchase transaction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pharmacist involvements in adolescent drug uses through drug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method.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yeonggi-do from October 2, 2016 to November 30, 2016, and t-test, ANOVA,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17.0). **Result:** 125 students (63.8%) received drug abuse prevention educations from pharmacists and 71 students (36.2%) did not receive these educations. 128 students (65.3%) have had the experience of drug purchasing at retail stores, indicating drug abuse prevention education was conducted inadequately for adolescents. This easy access to drug purchase may lead to drug abuse in adolescents. Adolescent's use of medication was 194 (99.0%) for the purpose of treating the disease and 2 (1.0%) for stress relief. 6 (3.1%) students purchased drugs at small retail stores instead of pharmacies or medical institutions and 193 (98.5%) students answered it was easy to purchase drugs, which indicate great concern about drug abuse. Also, 64 (32.7%) students have experienced side effects after taking drugs, which would mean an accurate and detailed medication use guidance is desperately necessary. **Conclusion:** Gender, health status, drug abuse education taught by pharmacists, and drug purchase route are confirmed as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drug abuse. The method of cooperative communication method has shown a more positive effect in adolescent drug abuse. Social factors that have positive impacts on adolescent drug abuse are drug abuse education provided by pharmacists and collaborative communication, so the high quality of educa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are definitely necessary in the future to improve adolescent's awareness of safe drug use.

##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 변화시기로서 인간이 생리·심리·사회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와 함께 빠르게 성숙하여 인격의 완성을 기하고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하는 단계이다. 또한 신체발육이나 인지적 성숙, 사회적 행동양식 등에서 아동기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성숙과 사회화가 필요하며, 아동과 성인의 이중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을 주변인(marginal man)이나 중간인이라 ‘폭풍과 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sup>1)</sup>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 등도 쉽게 남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은 관리와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약물의 정확한 복용법에 따른 올바른 사용은 질병치료에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과량 복용하면 마약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오·남용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약물 사용 경험은 마약이나 환각제 등의 남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sup>2)</sup>

의약품은 인명과 직결되므로 일반 소비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구매경로와 소비행태가 다른 소비재와는 상이하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소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처방의사가 선택한 브랜드를 구매해야하는 경우가 흔하고 일반의약품(OTC)처럼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사의 권유나 선택에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sup>3)</sup> 이런 과정은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행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약품의 소비자는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식수준별로 다양한 계층을 형성하므로 의약품 구매 시 개인의 만족도와 질병예후가 다양하며 개별화의 정도가 다양한 집단이다.<sup>4)</sup> 그러나 의약품의 실제 구매행위는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광고나 인터넷 매체, 친구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의향이 결정될 수도 있는 등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미숙하고 편향된 기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소비자의 편이성을 강조하여 수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최종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필수적 정보를 얻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sup>5)</sup>

최근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이란 질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와 유사하게 약료라는 관점에서도 제공자와 소비자의 행태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였다. 과

거에 비해 약료서비스는 명령-복종의 독립적 이해추구관계로부터 밀접한 협력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적 관계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약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은 약사-환자 관계의 시작점이며, 관계성을 유지하는 매개체 역할이며, 더 나아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약사에게는 보다 정확한 투약을 가능하게해주고 환자에게는 건강을 위한 양호한 생활방식을 보장해준다.<sup>6)</sup> 즉, 약국 안에서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것이 약료커뮤니케이션 개념이다. 약료커뮤니케이션은 공중에게 특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이어트나 약물남용, 질병이나 약물정보 등과 같은 특정행위에 대한 일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약물관련 제반 교육행위까지 포함한다.<sup>7)</sup>

근래 약사직능이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이제까지의 약사역할처럼 제조, 조제, 투약에만 국한한다면 얼마든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의한 혁명이지만 그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어야 하고 행복은 인간이 건강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젊어지게 될 것이며,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약사들의 역할이다. 비록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약사의 역할이 미래의 약사직능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더라도 미래 약사역할의 적어도 한 부분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약사로부터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이나 약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약물남용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 이론적 배경

### 1. 약사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 1.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공통’ 또는 ‘공유’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Communis’가 어원이다. 우리말로는 ‘의사소통’으로 번역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물개체가 지식, 정보, 감정을 공유하는 행동과정이고,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조직체나 사회집단에 형성되는 두 명 이상의 관계 당사자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서 쌍방이 의사와 감정을 전달하고 반응을 보이며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은 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인적 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sup>8)</sup> 보건의료현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에 대해 문의 혹은 조언하거나, 동료 의료인끼리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병원규정집을 활용하여 신규 채용된 약사에게 병원의 정책이나 방침을 전달하거나 정기 발간되는 약사회 소식지를 통해 약사가 약사회의 중요사안을 인식하는 것은 ‘조직-개인간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새 소식을 각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전파하는 것은 ‘조직-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사례이다. 이렇듯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발생한다.<sup>9)</sup>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약국 안의 소위 ‘약료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의 전략적 설계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sup>10)</sup> 약료커뮤니케이션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공중보건, 약학이 융합하고 성장해온 학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은 폭 넓은 분야에서 정보교환이 주된 개념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건강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약료’도 필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 융합 외에도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부분까지 포괄하는 분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연구에서의 주요 영역으로 (a)건강관련 소비자-제공자 상호작용, (b)사회적 지원, (c)보건 캠페인, (d)건강교육, 위험예방,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변화를 위한 정보기술, (e)건강관리 제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실습, (f)공중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사용, (g)건강에 관한 미디어의 영향과 사용을 포함한다.<sup>11)</sup> 약료커뮤니케이션의 핵심목적은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조직 및 공동체에 중요한 건강이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기술 및 방법을 말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일반적으로 약료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첫째, 정보제공과 관련된다. 이는 환자-약사 사이의 치료방향 협상과정에서 약사는 환자에 대한 질병정보와 치료선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는 특정 치료가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수반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약료커뮤니케이션은 약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제한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능은 설득이다.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용약물의 폐해를 전달하기 위하여, 대안적 사회문화를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의 개발은 약료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sup>12)</sup>

## 1.2 사회약학과 커뮤니케이션

사회약학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약사의 역할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의경<sup>13)</sup>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자가 치료를 시도함에 있어서 미국 국민은 4천만 명 이상이 OTC 약물을 사용하는데 약사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전문적 케어서비스 제공까지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약료서비스의 비용측면이나 일상생활에서 간섭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상적 건강문제에 대하여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약물사용에 따라 약학적, 독성학적으로 다양한 문제도 내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약사는 약물남용, 면역, 다이어트와 같은 전문적 건강교육, 정보, 지식, 기술을 제공하여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야 하며, 사회개혁이나 정책 등의 헬스케어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약료서비스에서의 사회약학은 약물이 연구, 개발, 생산되고 환자(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최종 이용되는 전 과정을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을 망라하는 사회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체제 및 사회구성원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약료의 사회학(sociology of pharmaceutical care)’이라고 한다면,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거나 환자-약사간 의사전달방법에 따라 복약이 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환자 순응도나 약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약료내 사회학(sociology in pharmaceutical care)’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 태도에 있어서 사회약학적 접근도 이러한 청소년-약사간 커뮤니케이션이 치료목적을 달성하는 기본기술이라고 하겠다. 이는 청소년-약사간 바람직한 관계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약사간 정보교환을 촉진시켜 함께 치료에 대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sup>14)</sup>

## 1.3 미래 약사의 역할인 커뮤니케이션

청소년이 약물사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약국이다.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건강상 이상을 느낀 일반인을 가장 먼저 접하는 제1차 의료 종사자이며,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물복용이 필요한 환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접하는 약의 전문가이다.<sup>15)</sup> 사전에 따르면 “약사(藥師)라 함은, 약사법(藥事法)에 의해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었고, “약사는 의사와 더불어 의료를 담당하는 약의 최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복지를 수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의 생산·조제·공급·관리를 비롯하여 직능이 다양하다”며 약사가 전문직임을 기술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약사의 직무는 의약품의 준비와 조제



에 국한하지 않고 약물사용에 대한 충고,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한다.<sup>17)</sup> 약사는 보건의로 종사자 중 사실상 일반인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 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처방 없이 조절할 수 없지만, 환자에게 주로 처방약의 효과와 용량, 용법 등의 복약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일반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며 권고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약사가 일반 국민에게 훌륭한 정보원이 된다는 것이다. 비록 약사가 약물에 대해 소비자나 환자보다 더 전문적일지라도, 약사는 일반인이 이해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sup>5)</sup>

약국에서 약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복약지도나 상담에서와 같이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다. 약사법 제2조16항에서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었으며,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함에 있어 그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고 안전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들에게 약학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sup>18)</sup>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활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었고, 미국 병원약사회는 약사가 환자의 약물치료계획에 대해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 환자치료의 긍정적 결과에 기여하므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약지도의 내용으로는 신현택<sup>19)</sup>의 연구결과에서 지역약국에서 용법/용량(74.6%), 저장방법(32.8%), 효능/효과(23.0%), 부작용(13.3%), 치료기간(12.9%), 약복용 망각시 행동(9%), 약품 명칭(8.6%), 기타 질병정보(6.3%), 상호작용(5.5%) 순으로 나타났다.<sup>5,20)</sup>

미래의 약사 역할은 가드<sup>21)</sup>의 약사-환자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로 잘 표현되는데, 약사의 세 가지 역할은 첫째, ‘헬스케어제공자’의 역할로서 환자의 약물치료나 행위인지, 긍정적인 건강결과를 위한 가이드 제공, 처방약이나 OTC의 약물치료에 대한 지식확장, 교육촉진, 환자육구상담, 신뢰구축, 건강조언자, 경청하기 등이며, 둘째는 전형적 역할로서 처방이나 OTC의 약물치료에 대한 지식확장, 신뢰구축, 환자처방의 적절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환자질문 응대, 약물치료 유지하기 등이며, 셋째, 대안치료자원 역할로서 환자의 행위와 복약치료의 이해, 투약과 대안치료 지식확장, 투약 및 대안치료 선택에 대한 환자상담, 신뢰구축, 건강조언자/상담자, 대안치료/약초요법(herbal therapy)을 포함한 교육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헬스케어시스템 안에서 약사의 가치는 대안치료 역할에서 두드러지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상담과 경청, 기능적/전문적 기술영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약사의 역할은 영역이해, 커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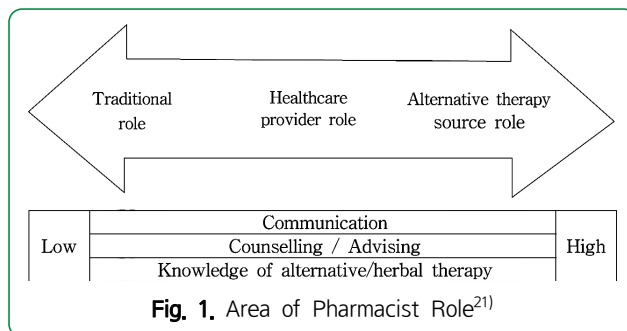


Fig. 1. Area of Pharmacist Role<sup>21)</sup>

케이션 능력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외적자원 영향에 대한 이해, 상담기술의 발전, 언어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극대화, 약료교육/인지하기 등을 포함한다. 곧 약사-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약료커뮤니케이션이다.

## 약물남용

### 1. 청소년기 약물남용의 실태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배경 이론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자는 이유와 양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실험적 사용자’로서 이들은 호기심과 또래집단의 압력 또는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남용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소량만을 사용하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과 쾌락추구와 현실도피를 구분한다. 사교적 또는 오락적 사용자도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 ‘상황적 사용자’로서 상황에 따라 강박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들의 문제를 극복수단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사용빈도가 달라진다. 셋째, ‘강박적 사용자’로서 이들은 약물에 의존하며 건강과 개인 및 사회적 기능이 약물사용에 의해 위협받으며 습관적이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려는 욕망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약물구하는데 집중하며, 문제나 고통,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sup>22)</sup>

한편, 밀만과 쿠리(1981)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을 권태, 호기심, 쾌락추구, 소외감, 절망감, 친구권유 등으로 꼽았다. 그들은 청소년기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많은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되며, 이 때문에 일시적 약물남용의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 반응에 해당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았으며,<sup>23)</sup> 친루드<sup>24)</sup>는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모험 추구형’, ‘평화 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감각 추구형’, ‘성적동반자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이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동기와 빈용약물을 제시하였다.<sup>25)</sup>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인의 그 것에 비하여 위험요소가 크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은 신체적 발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남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신체조직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은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이어서 판단력이 쉽게 마비되어 위험하고 때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인기에 접어들면 마약 같은 더욱 강력한 약물을 남용 및 의존할 수 있다.<sup>26)</sup> 약물남용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약물사용 경험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순화<sup>26)</sup>에 의하면 약물의 최초 사용 시기는 중학교 때가 52.4%로 월등히 높았지만, 초등학교 때도 21.5%나 되며, 박인혜 등<sup>27)</sup>의 초등학교 대상 연구에서도 음주경험을 가진 학생은 33.7%로 조사되었고, 흡연경험은 10.8%, 가스흡입이 2.3%, 신나 흡입도 1.3%로 조사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동기가 친구의 권유나 스트레스 해소가 대부분 1, 2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며,<sup>28)</sup> 보통 약물남용자의 경우 처음에는 비교적 관대한 음주문화와 구입하기 쉬운 술이나 담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중독성이 강하고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음주와 흡연은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Table 1, Table 2, Table 3).<sup>5)</sup>

**Table 1.** Experience rate of use of illicit and abuse drugs<sup>5)</sup>

Drugs	Experience rate (%)
진통제(Analgesics)	18.1
신경안정제, 수면제(Nervous stabilizers, sleeping pills)	4.9
살 빼는 약(Weight loss medicine)	3.1
머리 좋아지는 약(Medicine to improve brain function)	2.7
환각 흡입물질(Hallucinogenic substance)	2.4
각성제(A stimulant, a medicine that can not sleep)	2.3
근육을 키우는 약(Muscle strengthening medicine)	1.8
대마초(Cannabis)	0.4
마약 Narcotics(methamphetamine, heroine, etc.)	0.3

**Table 2.** Cases of misuse and abuse of medicines<sup>5)</sup>

Misuse and abuse cases	Frequency (%)	Misuse and abuse cases	Frequency (%)
항생제 (Antibiotics)	148 (23.4)	스테로이드 호르몬 (Steroid hormone)	111 (17.5)
진통제 (Analgesics)	72 (11.4)	소화제 (Digestives)	57 (9.0)
드링크제, 건강약 (Tonics)	49 (7.7)	감기약 (Colds remedies)	37 (5.8)
영양제 (Nutrients)	31 (4.9)	건강보조식품, 보약 (Nutraceuticals)	23 (3.6)
변비약/이뇨제 (Laxatives/diuretics)	22 (3.5)	자가진단 및 처방 (Self diagnosis and prescription)	19 (3.0)
신경안정제 (Neuro-stabilizers)	17 (2.7)	혈압약 (Anti-hypertensives)	16 (2.5)
청심원 (Cheongsimwon, cordial)	9 (1.4)	발기부전치료제 (Erectile dysfunction treatment)	7 (1.1)
당뇨병치료제 (Anti-diabetics)	6 (0.9)	주사제 선호 (Preferred injection)	4 (0.6)
기타 (Etc.)	5 (0.8)		
계		633 (100)	

**Table 3.** Motivations for adolescents to use illicit drugs or abuse drugs<sup>28)</sup>

Types of abuse substances	1 <sup>st</sup> reason	2 <sup>nd</sup> reason
술 (Alcohol)	10.7% (A)	5.6% (D)
담배 (Cigarettes)	8.2% (A)	5.6% (D)
환각흡입물질 (Hallucinogenic substance)	0.2% (A)	0.2% (C)
신경안정제/수면제 (Nervous stabilizers, sleeping pills)	0.9% (B)	0.4% (D)
각성제 (A stimulant, a medicine that can not sleep)	0.2% (B)	0.1% (A)
이뇨제/살 빼는 약 (Diuretics/weight loss medicine)	0.3% (A)	-
근육 키우는 약 (Muscle strengthening medicine)	0.1% (C)	0.1% (A)
대마초 (Cannabis)	0.1% (A)	0.1% (E)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0); A (by temptation of their friends); B (because of the pain); C (from the media); D (to relieve stress); E (because of the attraction)

## 2.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태도란 사물, 인간, 상황에 대한 비교적 일정한 느낌, 경향 또는 신념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소인이다. 태도가 변화하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이 요구되지만 바람직한 태도 형성은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은 약물남용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의 될 수 있다.<sup>29)</sup> 본 연구에서의 약물에 대한 태도란 약물남용 가능성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 정도를 의미한다. 약물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흡연하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물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유했고, 남학생은 고등학교 시기 이후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허용적 태도를 나타냈다.<sup>30)</sup> 또한 이지연<sup>29)</sup>의 연구에서 약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항목 중에서 약물사용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나쁜 행동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목적 외에도 사용해도 된다고 한 것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이 오지 않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사용해도 되며 선생님이나 어른이 술을 마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한 것은 약물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겠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거부적이고 통제적 집단에서 청소년의 비행 정도는 높아지고, 이런 비행은 약물사용과 연관되므로 청소년기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고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관계를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sup>31)</sup>

##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논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것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약물사용 경험, 약물 구입 시 약국에서 대상자가 느끼는 약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대상자의 약물남용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 2. 변수의 정의 및 설문문항의 구성

#### 2.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약물남용과 연관된 변수로써 성별, 학력, 생활수준, 건강상태, 부모와 동거여부, 약사로부터의 약물남용 교육경험, 소매점에서 약물구입 경험을 묻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2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조사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로 최재윤 등<sup>2)</sup>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에는 조사자의 사용약물 구입동기, 구입경로, 처음 사용목적, 구입장소, 구입용이성, 부작용 경험 등을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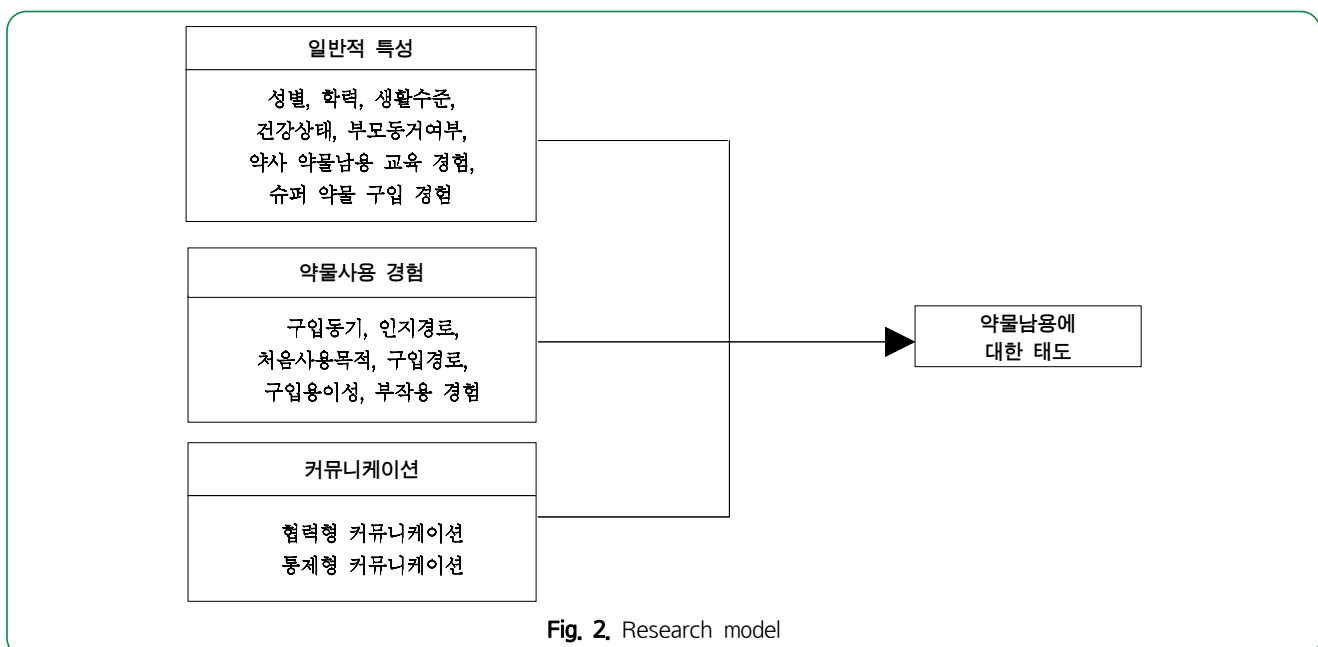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 2.3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

본 연구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건강관련 제공자 중에서 청소년들 약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약국에서 약사에 대한 유형으로만 제한했으며, 설문 10문항 중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은 Norton<sup>32)</sup>이 제시한 문항을 한운옥<sup>6)</sup>이 수정사용한 설문으로써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 친절함 등 5개 항목으로 수정, 구성했으며,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은 Ben-Sira<sup>33)</sup>가 제시한 문항을 한운옥<sup>6)</sup>이 수정사용한 설문으로써 약사의 권위적 태도, 극단적 표현, 환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 등 5개 항목으로 수정,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형식으로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일괄 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 2.4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약물남용 가능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물에 대한 태도 설문은 김소야자 등<sup>34)</sup>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15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낮을수록 약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전술한 모형의 적합성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다. 총 220부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한 207부(회수율 94.1%)의 설문지 중에서 답변이 부적절한 11부를 제외한 총 196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2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한 자료는 SPSS (ver. 17.0)의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과 t-검정, 분산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성별은 남자가 71명(36.2%), 여자가 125명(56.8%)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학력은 중학생이 100명(51.0%), 고등학생이 96명(49.0%)이었다. 생활수준은 ‘상’ 26명(13.3%), ‘중’ 161명(82.1%), ‘하’ 9명(4.6%)이었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상’ 78명(39.8%), ‘중’ 109명(55.6%), ‘하’ 9명(4.6%)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 질문에서는 ‘모두와 동거’라고 답변 응답자가 168명(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만’ 9명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Sex	Male	71	36.2
	Female	125	63.8
Education	Middle schooler	100	51.0
	High school student	96	49.0
Level of living	High	26	13.3
	Moderate	161	82.1
	Low	9	4.6
Health status	High	78	39.8
	Moderate	109	55.6
	Low	9	4.6
Whether parents live together	All living together	168	85.7
	Father only	9	4.6
	Mother only	15	7.7
	Do not live together	4	2.0
Pharmacists experience drug abuse education	Yes	125	63.8
	No	71	36.2
Experience buying drugs at retail stores	Yes	128	65.3
	No	68	34.7



(4.6%), ‘어머니만’ 15명(7.7%), ‘부모님과 같이 안 산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4명(2.0%)이었다. 약사에게 약물남용 교육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125명(63.8%)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소매점에서 약물구입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128명(65.3%), ‘없다’는 68명(34.7%)이었다.

## 2. 연구대상자의 약물복용 실태

약물복용을 위한 구입 동기는 ‘의사의 처방전으로’가 136명(69.4%), ‘약사가 권해서’ 31명(15.8%), ‘광고를 보고’ 18명(9.2%), ‘주위에서 권해서’ 11명(5.6%) 순이었으며, 약물을 인지한 경로는 ‘전문가(의사, 약사)’ 165명(84.2%)이었으나, ‘포레 친구나 주위사람’에 의해서가 15명(7.7%)으로 ‘TV나 라디오 광고’ 10명(5.1%), ‘인터넷’ 5명(2.6%), ‘신문이나 잡지’ 1명(0.5%)보다 훨씬 많았고, 처음 사용한 목적은 ‘질병치료’가 194명(99.0%)으로 가장 많았다. 약물구입 경로는 약국이나 병원이 190명(96.9%)로 가장 많았으나 소매점이 6명(3.1%)이었다. 약물구입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2명(1.0%), ‘어렵다’ 1명(0.5%), ‘보통’ 32명(16.3%), ‘쉽다’ 42명(21.4%), ‘매우 쉽다’ 119명(60.7%)라고

대답하여, 약물구입이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총 193명(98.5%)이었다. 약물복용후 부작용 여부에는 64명(32.7%)이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 3. 커뮤니케이션 유형

### 3.1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구성개념 타당성 중에서 판별타당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유형 10개에 대한 분석으로써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2개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설명하는 누적설명력은 63.838%로 파악되었다. 요인 1은 ‘약사는 나의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세히 설명해 준다.’ ‘약사는 나의 사소한 의견이나 증세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다’, ‘약사는 매우 편안하게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등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항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를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3.539, 설명력은 35.386%이었다. 요인 2

Table 5. Drug use history of study subjec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Purchase motivation	Recommended by pharmacist	31	15.8
	Through advertising	18	9.2
	Doctor's prescription	136	69.4
	Recommended around	11	5.6
Recognition route of medication	Advertising (TV, radio, etc.)	10	5.1
	Doctors, pharmacists	165	84.2
	Newspapers, magazines	1	.5
	Internet media	5	2.6
	People around me	15	7.7
First purpose of use	Diseases treatment	194	99.0
	Curiosity, pleasure	-	-
	Stress	2	1.0
Route of purchase	Pharmacy, hospital	190	96.9
	Retail store	6	3.1
	Friends, seniors/juniors, acquaintances	-	-
	Internet	-	-
Ease of purchase	Very difficult	2	1.0
	Difficult	1	.5
	Moderate	32	16.3
	Easy	42	21.4
	Very easy	119	60.7
Side effect experience	Yes	64	32.7
	No	132	67.3



**Table 6.** Factors for communication types

Factor item		Component	
		1	2
Cooperative Communication	Item 5	.874	
	Item 4	.872	
	Item 3	.864	
	Item 2	.803	
	Item 1	.745	
Controlled communication	Item 9		.806
	Item 7		.786
	Item 8		.778
	Item 6		.758
	Item 10		.594
Eigen value		3.539	2.845
Explanatory power		35.386	28.453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35.386	63.838

는 ‘약사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말로 과장하는 편이다’ ‘약사는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약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등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항으로서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2.845, 설명력은 28.453%이었다.

### 3.2 커뮤니케이션 유형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평균점수가  $3.34 \pm .8314$ 이었으며,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은  $2.46 \pm .6906$ 이었다.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에서 ‘약사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3.76±.8660), ‘약사는 매우 편안하게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3.33±.1.0405), ‘약사는 나의 사소한 의견이나

증세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준다’(3.29±.9985)의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질문에는 ‘약사는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2.28±.8861), ‘약사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말로 과장하는 편이다’(2.33±.8928), ‘약사는 까다로운 편이다’(2.36±.9094)의 순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의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2로 높은 내적일관성이 있었다.

## 4. 약물남용 태도

### 4.1 약물남용 태도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는데 15개 문항 중에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모두 0.50 이상으로 높게 파악되어 적합하게 나타났다.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약물남용 태도를 설명하는 누적설명력은 71.342%였다. 요인 1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관계가 없다.’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약물을 남용한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어쩔 수 없다.’ 등 약물남용에 대한 수동적 수용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수동적 약물남용 태도’ 요인이라고 명명했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7.896, 설명력은 52.643%이었다. 요인 2는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한 번쯤은 사용할 수도 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약물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Table 7.** Communication contents and types

Question	Mean	SD
1. 약사는 나의 병이 곧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북돋아 준다.	3.08	1.0638
2. 약사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3.76	.8660
3. 약사는 매우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3.33	1.0405
4. 약사는 나의 사소한 의견이나 증세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 준다	3.29	.9985
5. 약사는 나의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세히 설명해 준다.	3.26	1.0171
6. 약사는 약간 딱딱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나를 대하는 것 같다	2.48	.9844
7. 약사는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2.28	.8861
8. 약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2.36	.9094
9. 약사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말로 과장하는 편이다	2.33	.8928
10. 약사는 병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일절하지 않는다.	2.84	.955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8.** Factors affecting drug abuse attitudes

Factor item		Component	
		1	2
Passive attitudes of drug abuse	Item 14	.882	
	Item 15	.881	
	Item 11	.846	
	Item 7	.808	
	Item 5	.791	
	Item 6	.785	
	Item 12	.784	
	Item 13	.781	
	Item 10	.770	
	Item 8	.763	
Active attitudes of drug abuse	Item 9	.715	
	Item 4	.685	
	Item 2		.745
	Item 1		.706
	Item 3		.683
Eigen value		7.896	2.805
Explanatory power		52.643	18.699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52.643	71.342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등 약물남용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써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적극적 약물남용 태도’ 요인이라고 명명했고 이 요인의 고유값과 설명력은 각각

2.805, 18.699%였다.

## 4.2 약물남용 태도에 대한 기술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평균점수가  $3.89 \pm 0.8485$ 로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나타냈다. 특히 ‘이성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4.24±.9929),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4.16±.9925),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어쩔 수 없다’(4.03±1.0200),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관계가 없다.’(4.02±.9817),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4.01±1.0860)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반면 ‘인생을 살다보면 약물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3.06±1.168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3.67±1.1035),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한 번쯤은 사용할 수도 있다’(3.76±1.7153) 순으로 비교적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약물남용 태도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8로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었다.

## 5. 약물남용 태도에 대한 차이

### 5.1 일반특성별 약물남용 태도에 대한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는 성별 검

**Table 9.** Attitudes of the study subject toward drug abuse

Question	Mean	SD
1. 인생을 살다보면 약물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3.06	1.1688
2.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한 번쯤은 사용할 수도 있다.	3.76	1.7153
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3.67	1.1035
4.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3.83	1.0624
5. 이성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	4.24	.9929
6.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99	1.0377
7.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어쩔 수 없다.	4.03	1.0200
8.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쯤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다.	3.99	1.0646
9.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4.01	1.0860
10. 약물을 남용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것은 아니다.	3.90	1.1139
11. 약물을 남용한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3.91	1.0659
12. 약물을 남용한다고 해서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93	1.0625
13.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관계가 없다.	3.92	1.0782
14.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관계가 없다.	4.02	.9817
15.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4.16	.992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0.**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substance

Variable	Division	Mean	SD	t/F	p
Sex	Male	3,68	,8490	-2,677	,008**
	Female	4,01	,8276		
Education	Middle schooler	4,00	,8349	1,763	,080
	High school student	3,79	,8533		
Level of living	High	4,11	,8490	1,501	,225
	Moderate	3,84	,8714		
	Low	4,14	,6964		
Health status	High	4,02	,8272	4,319	,015*
	Moderate	3,85	,8767		
	Low	3,17	,6767		
Whether parents live together	All living together	3,90	,8578	1,039	,378
	Father only	3,49	1,2106		
	Mother only	3,83	,7324		
	Do not live together	4,33	,6278		
Pharmacists experience drug abuse education	Yes	4,06	,8742	3,825	,000***
	No	3,60	,7149		
Experience buying drugs at retail stores	Yes	4,01	,8318	2,564	,011*
	No	3,68	,8457		

Abuse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t/F(t: truth/F: False); \*p&lt;.05 \*\*p&lt;.01 \*\*\*p&lt;.001

**Table 11.** Differences in drug abuse attitudes by the study subject

Variable	Division	Mean	SD	t/F	p
Purchase motivation	Recommended by pharmacist	3,91	,7960	1,219	,304
	Through advertising	3,64	,7882		
	Doctor's prescription	3,94	,8959		
	Recommended around	3,55	,70580		
Recognition route of medication	Advertising(TV, radio, etc.)	4,01	,7286	,931	,447
	Doctors, pharmacists	3,92	,8755		
	Newspapers, magazines	3,00	-		
	Internet media	3,51	,8776		
First purpose of use	People around me	3,64	,8129	1,160	,283
	Diseases treatment	3,90	,8497		
	Curiosity, pleasure	-	-		
Purchase route	Stress	3,23	,4243	29,631	,000***
	Pharmacy, hospital	3,95	,7871		
	Retail store	2,12	,8788		
	Friends, seniors/juniors, acquaintances	-	-		
Ease of purchase	Internet	-	-	1,713	,149
	Very difficult	5,00	,0000		
	Difficult	3,27	-		
	Moderate	4,00	,7766		
	Easy	4,03	,8413		
Side effect experience	Very easy	3,80	,8870	-1,88	,851
	Yes	3,88	,7904		
	No	3,90	,8781		

\*\*\*p&lt;.001; SD (standard deviation); t/F(t: truth/F: False)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type of communication and attitude toward substance abuse

Factor	Mean	SD	Correlation coefficient
Cooperative communication	3.34	.8314	.066
Controlled communication	2.46	.6906	-.047

SD (standard deviation)

정에서 ‘남’(3.68), ‘여’(4.01)의 평균점수에서 t-value가 -2.677 ( $p<.01$ ), 약사로부터 약물남용 교육경험에서 ‘있다’(4.06), ‘없다’(3.60)의 평균점수에서 t-value가 3.825 ( $p<.001$ ), 소매점에서 약물구입 경험이 ‘있다’(4.01), ‘없다’(3.68)의 평균점수에서 t-value가 2.564 ( $p<.05$ )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상태에서도 ‘상’(4.02), ‘중’(3.84), ‘하’(3.17)의 평균점수에서 F-value가 4.319 ( $p<.05$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5.2 약물사용별 약물남용 태도에 대한 분석

대상자의 약물사용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는 약물 구입경로에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구입’(3.95), ‘소매점에서 구입’(2.12)의 평균점수에서 F-value가 29.631 ( $p<.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6. 커뮤니케이션과 약물남용 태도의 상관관계

2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약물남용 태도에 대한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물태도는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 평균점수 3.34, 상관계수 .066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로써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보여줬으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는 평균점수 2.46, 상관계수 -.047로 부정적인 상관관계로써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 7. 약물남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약물남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약물남용 태도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것으로써 방정식의 전체적 F값은 15.252이며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이었고, 이때 설명력은 28.6%이었으며 조정된 결정계수(Adj.  $R^2$ )는 .268이었다. 약물남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성별은  $\beta=.223$  ( $p<.001$ ), 건강상태는  $\beta=.160$  ( $p<.05$ ), 약사로부터의 약물남용 교육경험에서  $\beta=.238$  ( $p<.001$ ), 약물 구입경로에서  $\beta=6.085$  (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13.** Factors affecting the substance abuse attitude of the study subjects

Item	B	$\beta$	t
Sex	.400	.223	3.566***
Health status	-.244	-.160	-2.532*
Pharmacists experience drug abuse education	-.426	-.238	-3.755***
Experience buying drugs at retail stores	-.182	-.101	-1.599
Purchase route	-1.875	-.375	-6.085***
$R^2$		.286	
Adj. $R^2$		.268	
F		15.252***	

\* $p<.05$  \*\*\* $p<.001$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 (F-value);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 고찰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측면에서 미래 약사의 역할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설정하고, 이 같은 요인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로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구대상자 중에서 약사에게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은 125명(63.8%)인 반면 71명(36.2%)의 청소년이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답을 했으며, 슈퍼에서 약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128명(65.3%)으로 ‘없다’라고 대답한 청소년 68명(34.7%)보다 많았으므로 아직도 청소년에 대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전문가인 약사로부터의 시행되는 것이 미흡함을 보여줬을 뿐더러 이들 청소년이 소매점에서 약물을 구입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접근성이 높아져 남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 청소년의 일반특성별 약물남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도 약사로부터 약물남용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p<.001$ )가 성별( $p<.001$ )과 청소년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 $p<.05$ )와 함께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약물복용 실태에서 질병의 치료목적인 약물사용이 194명(99.0%)으로 가장 많았으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2명(1.0%)이 대답하였고, 약물구입처를 소매점이었다고 답한 사람이 6명(3.1%)이라는 것과 구입용이성에 대하여 193명(98.5%)이 ‘보통’, ‘쉽다’, ‘매우 쉽다’라고 대답하여 청소년의 약물구매 또는 소매점이 혹은 약국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약물복용후 부작용 여부도 64명(32.7%)이 부작용을 경험하였기에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복약지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항목의 평균점수는  $3.34 \pm 0.8314$ 로 긍정적인 반면, 통제형 커뮤니케이션 항목의 평균점수가  $2.46 \pm 0.6906$ 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최재운<sup>14)</sup>의 연구에 있어서 약국 약사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가 비록 쌍방향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청소년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치했음을 나타냈다고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약물남용 태도의 상관분석에서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약국에서 약사와 청소년에게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이 협력형 일수록 약물남용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약물남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대상자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약물남용이 좋지 않다는 비교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문항에서 높거나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등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건강상태, 약사로부터의 약물남용 교육경험, 약물 구입경로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확인되었고, 커뮤니케이션과 약물남용 태도와의 상관분석에서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더 긍정적이었다. 이 같은 분석은 전문직으로서의 약사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 약물사용에 있어 정신과 신체의 위험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요소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의 약물남용 태도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약사는 청소년이 약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이제까지의 거의 모든 연구들이 불법적 약물이나 물질의 남용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약사를 통한 약물남용 교육의 중요성과 접근 용이한 약국에서 실제 약물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 등으로써 제공받는 건강관련 정보와 의사소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청소년 약물남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전문가로서의 약사의 미래 역할을 상기시켜주었다. 특히 약사의 약물남용 교육이나 상담 혹은 복약지도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미는 미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듯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미래나 현재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수행하는 약물남용 교육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으나 아직까지는 소수의 약사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실정이며 대다수 약사는 무관심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협력형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약사를 제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불가능했다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약사나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건강정보의 전달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맥락뿐만 아니라 미디어 맥락, 조직적 맥락, 정치적/법률적 맥락,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맥락에서의 인터넷의 발달 추세는 개방성, 접근성,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부상 중이며, 이미 청소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하다. 넷째,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에 남녀간 성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대상자나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졌으며, 건강관련 문제에는 약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비록 미래 약사의 역할을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으로 Teacher, Communicator로서의 역할을 주로 강조하지만 7-star pharmacist에서 강조한대로 Care-Giver, Decision-Maker, Leader, Manager 및 Lifelong-Learner로서 역할을 인지하여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성인기 사이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서 한 인간이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숙하는 기간이므로 인격의 완성을 기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의 위기에서 청소년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반항·방황의 길을 겪게 되므로 비행이나 약물남용에 빠질 위험이 높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증적 차원에서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요인으로서 약료제공자인 약사에 의한 교육과 커뮤니

케이션이 청소년과 상호 의존적이며 협력적으로 시행될 때 청소년이 약물을 인식하는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의 질과 소통과정에서 한 차원 높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인숙.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대전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재윤, 이광섭. 청소년의 합법적 약물의 남용실태와 사회 의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병원 약사회지. 2011;28(1):39.
- 윤성애. 일반의약품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영미. SERVQUAL 모형을 이용한 약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재윤.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운옥. 의사와 환자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석병. 약물 남용 청소년 치료재활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서판수.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환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14;357.
- 한미정. 건강관련 커뮤니케이션 연구논문 내용분석. 광고홍보학보. 2005;7(5):210.
- 이진우.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가 헬스커뮤니케이션 캠페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재희. 의약 관련 신문보도의 프레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Eui-Kyoung Lee. Patient-Initiated Utilization of Pharmacy Services: Comparative between U.S. & Korea. Doctor of Philosophy. Graduate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Iowa. 1990
- 최재윤.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경기약사 학술제. 2013;8:73-96
- Herrier RN, Boyce RW, Apgar DA. Pharmacist-managed patient care services and prescriptive authority in the U.S. health service. Hosp Form. 1990;63-77
- 권태명.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5
- Pilnick A. Patient counseling by pharmacists: Advice, information, or instruction? Sociological Quarterly. 1999;587 612.
- 대한약사회. 복약지도 실무지침(안). 2005.
- 신현택. 의약분업하의 복약지도 적정화 방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연 구보고서. 2002.
- 이주현. 지역약국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Gade CJ. Understanding and defining roles in the pharmacist-patient relatio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07;1(1):94.
- 최선휘. 청소년 약물남용의 이론적 모형 및 치료모델 개발의 문제점. 부산여자대학교논문집. 1996;41(인문,사회과학대학편):7.
- 신현정. 중학생의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Chinlund S. Juvenile Offenders and the Drug Problems, in problems of Adolescents. ED. by Hary RE. Cull JG. Illinois Thomas. 1974.
- 전미경. 중학생의 흡연·음주 및 기타 약물 사용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순화. 물질남용 예방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물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인혜, 조인숙, 류현숙. 초등학교 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와 태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3;16(1):123.
- 이양훈.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지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와 약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경미, 박재용, 한창현.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지식, 태도 및 흡연 경험과 가족환경과의 관련 성. 학교보건. 2000;13(1):85-96.
- 최재윤, 이광섭.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병원약사회지. 2012;29(3):303.
- Pettegrew N, Pettegrew L. Attentiveness as a Style of Communication: A Structural Analysis. Communication Monographs. 1979;46.
- Zeev Ben-Sira. The Function of the Professional's Affective Behavior in Client Satisfaction: A Revised Approach to Social Interaction Theo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76;17.
- 김소야자, 박명운, 오가실, 등.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 체육청소년부. 1991;50-1.